

주간 해외에너지정책 동향

Issue 1 / 2010.1.8

□ OPEC, '10년 수요부진 대비 움직임

- '10년 상반기 석유의 공급과잉이 예상되는 가운데 수급균형을 위한 OPEC의 감산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OPEC은 '09년 11월 수준에서 약 40만b/d 감산 필요성을 인식함. 그러나 12월 현재 수급상황을 고려할 때 목표 생산량(2,484만b/d) 대비 약 220만b/d의 초과생산 물량이 추산됨.
- 원유의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비 OPEC 산유국의 감산협조가 필요하나 배럴당 \$70을 상회하는 현 유가수준에서 협조 가능성은 낮음.
- OPEC은 원유에 비해 시장통제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석유제품의 공급과잉상황을 더욱 우려함. 막대한 제품 재고물량을 고려할 때 OPEC의 감산 규모는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는 주장임.
- 생산능력 확대 또한 OPEC의 당면 문제임. 이라크는 생산능력을 현재의 250만b/d에서 '17년까지 1,100만b/d로 확대할 계획임.
- 이라크 정부는 최근 개발이 허가된 유전에서 '11년 첫 생산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지만, OPEC 관계자들은 첫 생산까지 최소한 5~6년의 투자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함.
- OPEC의 시장수급균형을 고려한 감산활동 강화 움직임이 주목받고 있음.

(Petroleum Intelligence Monthly, 2010.1.1)

NEWS

- OPEC, '10년 수요부진 대비 움직임
- 일본, '10년 에너지대책 특별회계 예산에 6,938억 엔 책정
- 일본, '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 20% 목표
- 일본, CO2를 천연가스로 전환하는 기술개발에 착수
- 일본 사프, 유럽기업과 태양전지 개발협력 사업 추진
- 중국 국가에너지위원회, '10년 10대 중점 에너지대책 결정
- 중국, \$404억 규모의 호주 브라우즈 LNG 매매 계약 취소
- 중국-영국-EU, 풍력에너지 프로젝트 확대 추진
- 캐나다 퀘벡주, 캘리포니아 자동차 배출기준 적용
- CFTC, 에너지선물 투기거래 완화 규정 제안 계획
- 미국 캘리포니아주,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244개 추진 계획
- 미국, '09년 총에너지 및 전력생산에서 신재생 에너지원 비중확대
- 멕시코, '10~'24년 전력부문에 \$917억 투자 예정
- 브라질-중국, 에탄올 공동생산 양해각서 체결
- 브라질, 온실가스 배출 감축관련 법안 서명
- 베네수엘라-중국, 오리노코 유전 공동개발 협정 체결
- 페루, 까미세아 가스파이프라인 운송용량 확대 계획
- 사우디아라비아, '13년경 중등 석유공급의 40% 차지할 전망
- 카타르, LNG 생산증가로 '10~'11년 재정 흑자 전망
- UAE, '14년까지 원유생산능력 12.5% 확대 계획
- 쿠웨이트 KGOC, '10년 석유-가스 프로젝트에 \$11.4억 투자 계획
- 바레인, 중등 최초 CO2 흡수플랜트 가동 개시
- 이집트 '10년 520개 유정 시추 예정
- 러시아, 벨라루스에 원유 공급 재개
- 영국, 가정 에너지효율개선 프로젝트에 착수
- 프랑스, COP16 로드맵 발표
- 프랑스, '10년 1월 1일 발효예정 탄소세 위한 판결
- 스페인, 풍력발전 보완 위해 가스복합화력발전소 설비용량 증대
- ABI Research, CCS 상용화를 위해 탄당 탄소 가격 \$40로 인상 주장

ANALYSIS

- '10년 세계 천연가스 수요-공급 전망
- LNG시장, '09년 회고와 '10년 전망

REPORT

- 세계 석유제고량, 흑한기 난방유 소비 증가에도 높은 수준 유지

Oil Prices (Spot, \$/bbl)





ASIA, AMERICA & MIDDLE EAST

□ 일본, '10년 에너지대책 특별회계 예산에 6,938억 엔 책정

- 일본 정부는 지난 12월 25일 '10년 에너지대책 특별회계 예산액(안)을 '09년 예산 대비 1.4% 감소한 6,938억 엔으로 책정하였다고 발표함.
- '10년 예산(안)은 가정용 태양광발전 설치 보조금에 401억 엔('09년 대비 2배 증가), 전기자동차 및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등의 친환경 차량 도입 촉진 보조 사업에 124억 엔('09년 대비 5배 증가)을 포함하며 지구온난화 대책에 역점을 두고 있음.
- 스마트 그리드(지능형 전력망) 기술개발 예산 43억 엔, 원자력관련 예산 16억 엔이 확정됐고, 특히 원자력 예산은 부품재료 제조사의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일본 원자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음.
- '10년 예산(안)에는 저탄소 실현을 위한 혁신 기술개발 사업도 포함됨. 예컨대 태양광발전 시스템의 차세대 고성능기술 개발을 위해 41억 엔, 탄소포집·저장(CCS) 장치 실용화 추진에 74억 엔('09년 대비 2배)이 배정됨.
- 자원·에너지 공급안정을 위해 석유 및 천연가스 탐사 등을 지원하는 사업에는 100억 엔('09년 대비 74% 증가)이 확보됨.

(電氣新聞, 2009.12.28)

□ 일본, '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 20% 목표

- 지난 12월 26일 오자와 일본 환경성 장관은 '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20% 이상 확대한다는 지구온난화대책법을 '10년 1월 정기(통상)국회에 제출할 것이라 밝힘.
- 일본 민주당은 '09년 8월 중의원 선거 공약에서 '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을 10%로 확대한다고 제시한 바 있었으나, 정부는 민주당이 제시한 비율보다 더 높은 수치목표를 내세워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성장을 촉구할 방침임.
- 신재생에너지에는 태양광, 수력, 풍력, 바이오매스 등이 있으며, 일본 에



너지백서에 따르면, '06년 기준 일본의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은 약 1.8%로 미국 3.7%, 독일 5.3%보다 낮음.

- 산업으로서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신재생에너지는 세계적으로 관련 기업이 증가하고 있어 정부 주도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및 잉여 태양광발전 매입제도가 충실히 이행될 필요가 있다고 오자와 장관은 언급함.

※ 잉여 태양광발전 매입제도 : 현재 전력회사가 자발적으로 가정용 태양광발전의 잉여전력을 1kWh당 약 24엔으로 매입하던 방식에서 가격을 2배 인상한 48엔으로 매입하는 것을 의무화

(Yomiuri新聞, 2009.12.27)

□ 일본, CO₂를 천연가스로 전환하는 기술개발에 착수

- 일본 해양연구개발기구(JAMSTEC)는 CO₂를 해저 심층부에 투입해 포집한 뒤 미생물을 주입하여 천연가스(메탄)로 바꾸는 기술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힘.
 - 현재 지구온난화 대책의 일환으로 CO₂를 지중에 포집하여 저장하는 방안은 일본 등 여러 국가에서 개발 연구하고 있지만, CO₂를 에너지로 전환하는 시도는 일본이 처음임.
 - 동 기구는 '06년 탐사선 '지구'호를 통해 일본 북부 아오모리현 시모키타반도 해안 지하 650m까지 시추, CO₂를 메탄가스로 전환시키는 '메탄생성균'의 존재를 확인한 바 있음. 동 기구는 갈탄층에도 이런 균들이 존재한다고 예측하고 두터운 점토층으로 덮인 갈탄층에서 CO₂를 메탄으로 바꿀 계획이며, 이를 위해 균의 능력을 강화하는 기술을 3~5년 내에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동 기구는 실용화를 위해 CO₂ 회수 장치가 있는 화력발전소에서 파이프를 통해 CO₂를 해저 갈탄층으로 보내 포집·저장한 뒤 생성되는 메탄가스를 다시 발전소로 끌어올려서 에너지원으로 이용한다는 구상임.
- 동 기구는 홋카이도 주변 해안 지하의 갈탄층에 최대 2,000억 톤의 CO₂를 포집·저장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함.

(Yomiuri新聞, 2010.1.4)



□ 일본 샤프, 유럽기업과 태양전지 개발협력 사업 추진

- 샤프는 1월 4일 이탈리아 전력업체 에넬(Enel)의 자회사인 에넬그린파워(EGP)와 3중 박막 태양전지 패널 생산 및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공동 개발 계약을 체결함.
 - 이에 양사는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에 합작 공장을 설립하여 '11년 가동 개시할 계획이며, 가동 초기 태양전지 생산능력을 연간 160MW에서 연간 480MW까지 확대할 예정임.
 - 태양전지 패널 생산에 스위스 반도체 대기업인 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STMicroelectronics)도 전략적 협력사로서 참여함. 샤프와 EGP가 설립하는 합작 공장은 ST마이크로가 소유한 공장을 활용할 예정이며, 3개사가 태양전지 패널 생산회사에 1/3씩 출자할 예정임.
 - 태양광발전시설 공동 개발에는 샤프와 에넬이 50:50으로 출자하여 합작 회사를 설립할 예정이며,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등 지중해 지역에 '16년까지 총 500MW 규모의 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임.

(日本經濟新聞, 2010.1.4)

□ 중국 국가능원에너지국, '10년 10대 중점 에너지대책 결정

- '09년 12월 27~28일간 중국 베이징에서 국가능원에너지국이 개최한 전국 능원공작회의에서 '10년 10대 중점 에너지대책이 결정됨.
 - 에너지개발 중장기 계획을 신속히 수립하여 '20년까지 비화석 에너지의 1차 에너지 공급 비중을 15%까지 높이고 전력사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소형열병합발전(Cogeneration), 대형석탄·전력기지, 전력망 건설을 추진하며, 석탄공업부문의 기술개발을 촉진함.
 - 석유·천연가스 탐사개발을 강화해 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신재생 에너지와 원자력에너지 개발에 주력하며, 자원보유국과의 호혜평등원칙 하에 협력을 확대함. 에너지산업의 최첨단 과학기술 도입과 에너지절약 대책을 추진함.
 - 농촌 및 소수민족 지역의 에너지설비 건설을 강화하고 에너지법과 제



도 등을 구축하여 에너지관리 대책을 법제화하며, 에너지 수급 예측을 강화해 긴급 상황 시 에너지 안보 능력을 증강함.

(中國石化新聞網, 2009.12.29)

□ 중국, \$404억 규모의 호주 브라우즈 LNG 매매계약 취소

- 호주 원유생산업체인 우드사이드(Woodside Petroleum)는 1월 4일 페트로차이나(PetroChina)가 호주 북서부 브라우즈(Browse) 프로젝트에서 생산되는 LNG 구입계약을 취소하였다고 밝힘.
 - 양사는 '07년 9월 연간 200만~300만 톤의 LNG를 15~20년에 걸쳐 약 \$404억 규모의 계약을 합의하였지만, 사업 계획이 지연되면서 결국 취소된 것으로 추정됨.
 - 페트로차이나는 브라우즈 프로젝트 이외에도 '09년 8월 엑슨모빌과 셰브론, 셸이 호주 서해안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르곤(Gorgon) 프로젝트로부터 20년간 연간 225만 톤의 LNG를 공급받기로 계약한 바 있음.

(Searchina, 2010.1.5)

□ 중국-영국-EU, 풍력에너지 프로젝트 확대 추진

- 중국과 영국, EU는 '10년 풍력발전 비중 확대계획을 추진할 예정임.
 - 중국은 '09년 20GW의 발전량을 보이면서 미국과 독일에 이어 세계 3위의 풍력발전 국가로 자리매김하였으며, 풍력발전능력을 '09년 9%에서 '20년 15%로 확대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음.
 - 영국은 신규 해상풍력단지 건설을 위해 1,000억 파운드 규모의 그린에너지제도(green energy scheme)를 도입하여, 자국의 탄소배출량을 감축하고 '20년 풍력발전 비중을 총 발전용량의 1/3로 확대하는 목표를 밝힌 바 있음.
 - EU 9개국(독일, 프랑스,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덴마크, 아일랜드, 스웨덴, 영국)은 풍력발전을 이용한 최초 전력망 연계를 추진 중으로 '20년까지 고전압 전력망을 구축할 계획임.

(Electric.co.uk, 2010.1.6)



□ 캐나다 퀘벡州, 캘리포니아 자동차 배출기준 적용

- 캐나다 퀘벡州는 캐나다 州로는 처음으로 1월 중순부터 미국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15개 주에서 시행되는 자동차 배출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퀘벡州는 동 기준을 적용하여 '06년 퀘벡州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40%를 차지하는 운송부문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계획으로, 자동차제조업체가 '16년까지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30% 감축하도록 할 계획임.
 - 퀘벡州에서 '10~'16년 판매되는 모든 자동차에 적용되는 배출기준은 평균 연비목표를 갤런당 35.5 마일로 설정함.
 - 미국은 '12~'16년 생산될 차량모델에 자동차 배출기준을 적용하고 캐나다는 '11년형 신규 자동차에 배출기준을 적용할 예정임.
- 퀘벡州 당국은 동 배출기준 시행으로 '12년까지 '90년 대비 20%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함.

(Point Carbon, 2010.1.5)

□ CFTC, 에너지선물 투기거래 완화 규정 제안 계획

-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조만간 에너지선물에 유입되는 투기자금을 억제하기 위해 새로운 규정을 제안할 계획임.
 - CFTC는 석유, 천연가스 및 기타 에너지선물 거래계약 제한에 직접 개입할 예정이며, 현재 에너지선물 거래는 뉴욕상품거래소(NYMEX)와 같은 거래소가 담당하고 있음.
 - 일부 곡물시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선물거래 상한과 유사한 방법으로 에너지선물 거래상한이 설정될 예정임.
 - 구체적 규제방법 및 내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공청회를 통해 여론을 수렴할 예정임.

(Financial Times, 2010.1.6)



□ 미국 캘리포니아州,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244개 추진 계획

- 슈워제네거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244개의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통해 매년 7만MW 규모의 청정에너지 생산 계획을 발표함.
 - 동 프로젝트는 풍력, 태양에너지, 지열에너지, 바이오연료 및 소수력 발전소 건설을 포함하고 있으며, 현재 주정부 및 연방정부의 승인절차가 진행 중임.
 - 53개의 프로젝트는 경기부양책을 기반으로 30%의 세금공제를 '10년 말까지 지원받을 예정이며, 22개의 프로젝트는 200MW급 이상의 발전소 설치를 통해 총 9,000MW 이상 규모를 갖출 계획임.
- 캘리포니아州는 현재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8,000MW 규모의 발전용량을 보유하고 있는데, '20년 전체 발전량의 33% 이상을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생산하는 목표 달성을 위해 추가로 15,000~25,000MW가 필요함.

(Instalbiz.com, 2010.1.4)

□ 미국, '09년 총에너지 및 전력생산에서 신재생에너지원 비중확대

- EIA는 Monthly Energy Review 12월호를 통해 '09년 1월~9월 미국 에너지생산에서 신재생에너지원의 비중이 10.5%를 차지했으며, 이는 '07년과 '08년 대비 각각 9.67%, 10.12% 증가한 수치라고 발표함.
 - '09년 3/4분기까지 신재생에너지원의 에너지생산은 전년 동기대비 4.1% 증가하였는데 대부분 풍력 및 수력발전이 차지함. 풍력과 수력발전량은 각각 전년 동기대비 28.46%, 4.73% 확대됨.
 - 신재생에너지원의 비중은 수력발전 35.16%, 바이오매스 30.72%, 바이오연료 20.25%, 풍력 8.17%, 지열 4.52%, 태양에너지 1.17%로 구성됨.
- 또한 EIA는 12월 Electric Power Monthly 보고서에서 '09년 3/4분기까지 전력생산의 10.2%를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였으며, '07년(8.72%)과 '08년(9.18%) 대비 소폭 증가하였다고 전함.
 - 전통적수력발전(conventional hydropower)이 전력생산의 6.9%를 차지하였으며, 바이오매스, 지열, 태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원은 3.3%를 차지함.



- '09년 3/4분기까지 미국의 전체 전력생산은 전년 동기대비 4.72% 감소하였지만 신재생에너지원에서 생산된 전력은 증가함.

(newenergyfocus.com, 2010.1.4)

□ 멕시코, '10~'24년 전력부문에 \$917억 투자 예정

- 멕시코 에너지부(Sener)는 '10~'24년에 전력부문에 \$917억(11.9억 페소)을 투자할 예정임.
 - 총 투자금 중 약 49%는 발전부문에, 20.1%는 배전부문에, 18.5%는 송전부문에, 11.6%는 유지보수부문에, 나머지는 기타부문에 투자할 예정임.
- Sener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30MW 이하 규모의 수력발전 포함)을 '08년 3.3%에서 '12년 7.7%로 높일 계획임.
 - '10~'23년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5.55GW에 이를 전망인데, 이 수치에는 멕시코 남동부 오아하까췌에 위치하게 될 4개 발전단지(각각 304MW)가 포함됨. 발전 기술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풍력발전일 가능성이 높으며, 각 발전단지는 '13~'16년 중 해마다 가동개시 예정임.

(BNamericas, 2009.12.30)

□ 브라질-중국, 에탄올 공동생산 양해각서 체결

- 브라질 국영석유기업 Petrobras는 '09년 12월 23일에 중국 국영석유기업 PetroChina와 브라질에서 사탕수수 에탄올 공동생산을 위한 기술적·경제적 평가 연구 및 對중국 에탄올 수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발표함.
 - Petrobras에 따르면 중국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휘발유에 에탄올을 혼합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으나 자국생산량만으로는 에탄올을 국내시장에 충분히 공급할 수 없어 브라질에 생산 투자를 하고 있음.
 - Petrobras는 PetroChina와의 합작사업을 통해 세계 최대 에탄올 생산기업으로 발전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음. 이의 일환으로 Petrobras의 자회사인 Petrobras Biocombustivel SA(PBio)는 PetroChina와의 동업으로 브라질 남동부 미나스제라이스췌에 위치한 사탕수수 에탄올 증류소의



설비용량을 현재 연간 10만 m^3 에서 20.3만 m^3 으로 확대할 계획임.

- 현재 브라질에서는 가변연료(flex-fuel)차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차량용 연료에 25% 에탄올 혼합을 의무화하고 있어 에탄올 수요가 늘고 있음. Petrobras는 '09~'13년간 에탄올과 바이오디젤 생산 증대를 위해 \$24억을 투자할 계획임.

(Latin American Herald Tribune, 2009.12.23), (pennenergy, 2009.12.28)

□ 브라질, 온실가스 배출 감축관련 법안 서명

- 실바 브라질 대통령은 코펜하겐 기후변화협약 정상회의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요구 이행을 위해 '09년 12월 29일 BAU(배출전망치) 대비 '20년까지 브라질 온실가스 배출량을 39% 감축하는 법안에 서명하였음.
- 상기 감축비율에 해당하는 이산화탄소 환산량은 약 10.6억 톤으로 추정됨. 브라질은 코펜하겐 회의에 앞서 11월에 BAU 대비 '20년까지 온실가스 36.1%~38.9%를 감축한다는 자발적 목표를 발표한 바 있음.
- 동 법안은 아마존 및 사바나림의 산림벌채 억제와 농업 부문 등에서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시함. 아마존 산림벌채를 앞으로 '20년까지 80% 줄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20.9% 감축시키며, '세라도(Cerrado)'라 불리는 브라질 중부 사바나림의 산림벌채를 40%까지 줄여 3.9% 감축시키고, 농업부문에서 4.9%~6.1% 감축시킬 예정임.
- 브라질 대통령은 새 법안에 서명하기 전에 청정에너지개발 장려와 화석연료 사용을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였음.

(AFP, 2009.12.29), (Point Carbon, 2009.12.30)

□ 베네수엘라-중국, 오리노코 유전 공동개발 협정 체결

- 베네수엘라 국영석유기업 PDVSA와 중국 해양석유총공사 CNOOC는 12월 22일 베네수엘라 동부 중질원유지대인 오리노코 유전 개발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음.
- 두 기업은 오리노코 유전의 보야까(Boyaca) 3 광구를 개발하는데 주력할 계획임. 동 개발을 통해 베네수엘라의 對중국 원유수출량이 기존 40



만b/d에서 100만b/d로 확대될 예정이며, 중국은 지속가능한 원유 공급을 위해 수입지를 다양화하여 현재 중동·아프리카·아시아-태평양 지역뿐만 아니라 남미시장으로의 진출을 꾀함.

- 중국 국영석유기업 CNPC도 PDVSA와 오리노코 유전에서 생산한 원유를 정제할 정유소를 중국에 설립하기로 합의하였음.

(ViewsWire, 2009.12.24)

□ 페루, 까미세아 가스파이프라인 운송용량 확대 계획

- 페루는 국내 가스공급 확보를 위해 까미세아(Camisea) 가스전에서 리마市까지 가스를 운송하는 가스파이프라인 운송용량 확대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임.
 - 까미세아 가스파이프라인 시스템의 운영기업인 페루 가스운송회사 TGP (Transportadora de Gas del Peru)는 12월 22일 리마(Lima) 근처 루린(Lurin)에 위치한 가스압축플랜트 가동을 개시하였음. 동 플랜트 가동으로 파이프라인 운송용량이 3.8억ft³/d에서 4.5억ft³/d로 증가될 전망이다.
 - 또한 기존 파이프라인을 연결하여 10억ft³/d 용량으로 확장건설을 추진하고 있음.
- TGP는 현 파이프라인 용량확대 프로젝트에 \$8억을 투자할 예정이며, 그중 \$2억은 파이프 구매에, \$2.9억을 루린 가스압축플랜트에 투자할 예정임. 파이프라인 확장을 위해 브라질 국영개발은행 BNDES로부터 \$1.97억을 지원받을 예정임.

(ViewsWire, 2009.12.24)

□ 사우디아라비아, '13년경 중동 석유공급의 40% 차지할 전망

- 리서치업체인 BMI(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는 '13년까지 중동지역 석유수요의 21%, 석유공급의 40%를 차지할 전망이다.
- 중동지역의 '09년 석유소비는 1,100만b/d 이상으로 추산되며, '13년에는 1,200만b/d로 증가할 전망이다. 사우디의 석유수요는 '08년 222만b/d에서



'13년 249만b/d로 증가하여 연 3%의 증가율을 보일 전망이다.

- '01년 2,287만b/d이었던 중동지역의 석유생산은 '13년에 2,900만b/d로 증가될 전망이다. BMI는 '08~'18년 중 사우디의 원유생산은 18.2% 증가한 1,280만b/d가 될 것으로 전망하였음.
- 한편, 사우디의 천연가스 생산은 '08년 790억m³에서 '18년 1,240억m³로 증가할 전망이다.
 - BMI는 사우디의 '09년 실질 GDP 성장률을 2.1%로 추정하였고, '10년에 2.8%, '11/'12년에 3.5%, '13년에 4.2%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ArabianBusiness.com, 2010.1.6)

□ 카타르, LNG 생산증가로 '10~'11년 재정 흑자 전망

- 사우디 금융기관인 SAMA(Saudi Arabian Monetary Agency)는 LNG 생산량 증대로 카타르의 '10~'11년 소득이 증가하여 재정 흑자폭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함.
 - '08년에 비해 크게 떨어진 유가수준과 OPEC의 감산합의준수에 따른 원유감산에도 불구하고 카타르의 '09년 실질 GDP 성장률은 9.4%에 달할 전망이며, 향후 실질 GDP도 상승세를 유지할 전망이다('10년 18.1%, '11년 13.3%).
 - LNG 및 NGL 생산증가와 유가회복에 힘입어 카타르 정부세수는 연평균 \$500억 이상 증가할 전망이며, '09~'10년 재정흑자 규모는 GDP의 2%에 달할 전망이다.
 - '09~'10년 예산 지출은 약 \$260억, 수입은 \$244억으로 명목상 \$16억 재정적자를 기록하겠지만, 실질 가격으로 계산할 경우 GDP(\$996억)의 2%에 해당되는 \$19.8억 규모의 재정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카타르의 '09년 총 석유·가스 생산에 따른 소득은 약 \$442억, '10년에는 \$643억, '11년에는 \$808억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 카타르의 LNG 수출은 '08년 3,000만 톤에서 '09년 5,400만 톤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산됨.



- 이 중 2,070만 톤은 국영기업인 Rasgas가 생산하였고, 나머지는 정부와 외국기업의 합작투자회사인 Qatargas가 생산하였음.
- 한편, Rasgas는 '12년까지 3,620만 톤, Qatargas는 4,100만 톤을 생산할 계획임.

(Zawya.com, 2010.1.3)

□ UAE, '14년까지 원유생산능력 12.5% 확대 계획

-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UAE는 '14년까지 원유생산능력을 306만 b/d로 '09년(272만b/d) 대비 12.5% 증대할 계획임.
 - '10년 UAE의 원유생산능력은 올해보다 다소 축소되어 271만b/d가 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후 완만한 증가세를 보여 '11년에는 275만b/d, '12년 288만b/d, '13년 299만b/d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UAE의 지난 11월 원유생산량은 227만b/d로 10월보다 1만b/d 감소하였는데, 이는 OPEC의 생산쿼터를 준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UAE 정부는 발표하였음. IEA 자료에 따르면, UAE는 OPEC국가 중 생산쿼터를 100% 준수한 유일한 국가임.
 - UAE 원유의 90% 이상을 생산하는 ADNOC(Abu Dhabi National Oil Company)의 지난 11월 공식원유가격은 평균 \$78.07/bbl로 국제유가와 비슷한 수준이었음.

(Zawya.com, 2010.1.1)

□ 쿠웨이트 KGOC, '10년 석유·가스 프로젝트에 \$11.4억 투자 계획

- 쿠웨이트 KGOC(Kuwait Gulf Oil Company)는 '10년 석유·가스 프로젝트에 \$11.4억을 투자할 계획임.
 - 동사의 향후 5년('09~'13년)간 프로젝트 운영 예산은 약 \$42.1억인데, 이 중 '10년 석유·가스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액은 \$11.4억으로 전체 예산대비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예산을 투입함.
 - KGOC는 지난 5월 향후 20년간 사우디아라비아 분할지역의 원유생산



능력을 90만b/d로 확대하기 위해 약 \$110억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음.

- 또 쿠웨이트는 지난 10월 '20년까지 원유생산능력을 400만b/d로 확대하고 '30년까지 생산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음.
- 2020 전략의 일환으로 KGOC는 KOC(Kuwait Oil Company), KFPEC (Kuwait Foreign Petroleum Exploration Company), ODC(Oil Development Company)와 함께 상류부문을 통합할 예정이라고 밝힘.

(Upstreamonline.com, 2009.12.30)

□ 바레인, 중동 최초 CO₂ 회수플랜트 가동 개시

- 바레인 GPIC(Gulf Petrochemical Industries Company)는 중동 최초의 CO₂ 회수플랜트 가동을 개시하였음.
- 동 플랜트는 CO₂ 450톤/d를 포집할 수 있는 세계적인 규모의 시설로서, \$5,500만의 건설비용이 소요되었으며 시트라(Sitra)에 위치해 있음.
- 포집된 CO₂는 암모니아 및 메탄올 생산량을 200톤/d로 증대하기 위한 사업에 투입될 예정임.
- 동 플랜트는 이탈리아 Tecnimont와 일본 Mitsubishi 중공업에 의해 27개월간 공동으로 건설되었음.

(ArabianBusiness.com, 2010.1.4)

□ 이집트 '10년 520개 유정 시추 예정

- 이집트는 '10년 520개의 탐사유정 및 생산유정과 36개의 천연가스정을 시추할 예정임.
- 유정 시추비용은 \$20억, 천연가스정 시추비용은 \$10억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됨.
- 시추지역은 국영 석유기업인 EGPC(Egyptian General Petroleum Corporation)의 개발 허가지역임. 천연가스정 시추는 나일삼각주 및 지중해 해상에서 이루어질 예정임.



- 이집트 석유부의 '09년 7월 발표에 의하면, 동국의 천연가스 확인매장량은 77.2조ft³이며 원유 및 콘덴세이트 매장량은 44억 배럴에 달함.
- 이집트는 주요 천연가스 수출국이지만, 증가하는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10년까지 신규 가스수출계약은 체결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음.

(Upstreamonline.com, 2010.1.4)

EUROPE & AFRICA

□ 러시아, 벨라루스에 원유 공급 재개

- 러시아는 벨라루스와의 분쟁 미해결에도 불구하고 벨라루스에 대한 원유 공급을 1월 3일 재개함. 러시아는 벨라루스와 '10년 원유 수출세율 합의 실패로 벨라루스 내 정유소에 대한 원유 공급을 12월 31일 중단하였음.
- 벨라루스가 러시아로부터 공급받는 원유는 연간 2,000만 톤(40만 b/d)으로 이 가운데 600만톤(12만b/d)만 내수용으로 소비되며, 나머지는 정제되어 서유럽으로 재수출되고 있음. 벨라루스의 對유럽 석유제품 수출액 규모는 약 \$500억로 벨라루스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음.
- 러시아는 벨라루스가 러시아로부터 공급받는 원유 중 정제후 수출용에 대하여 수출관세를 부과한다는 계획이지만, 벨라루스 정부는 기존과 같이 전체 공급물량 2,000만톤에 대하여 수출관세 할인을 요구하고 있음.
- 양국 간의 관세분쟁으로 일부 유럽 국가는 겨울철 석유제품 수입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제기됨. 독일과 폴란드 등은 러시아에서 벨라루스를 거쳐 유럽으로 연결되는 드루즈바(Druzhba) 파이프라인을 통해 내수용 석유제품 상당량을 수입하고 있음.

(Euractiv.com, 2010.1.5)

□ 영국, 가정 에너지효율개선 프로젝트에 착수

- 영국의 주요 기업과 관련기관들은 최신 청정기술을 사용해 가정의 에너



지, 물, 교통 및 쓰레기배출 부문을 혁신하고 탄소배출을 저감하는 산학 프로젝트에 착수하였음.

- 동 프로젝트는 신설되는 Thames Gateway Institute of Sustainability가 담당하고, 참여기관은 GE, HSBC, EDF, Biffa 등 25개 글로벌기업과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대학 등임.
- 20만개 주택을 청정 주택으로 전환하는데 소요자금은 약 1조 파운드로 예상되며, 신규 재원마련을 위하여 연금펀드 사용여부가 논의중임.
- 동 프로젝트는 상용 가능한 환경기술을 사용해 기존 커뮤니티를 쓰레기 발전시설, 전기차 충전소, 최신 집수(water capture)기술 등을 갖춘 지속 가능한 커뮤니티로 전환할 것임.
- 동 프로젝트의 대상 시범단지로 런던 동부의 Thames Gateway 주택조성사업과 켄트 북부 소재 두 개의 주택단지가 선정될 예정임.
- 정부와 규제당국은 동 프로젝트로 대표되는 녹색뉴딜 정책이 경제회복 수단으로 기능하기를 희망하고 있음. 달링(Darling) 재무부 장관은 녹색 산업에서 향후 10년간 5,000만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함.

(The Guardian, 2010.1.1)

□ 프랑스, COP16 로드맵 발표

-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12월 22일 '10년 11월 멕시코에서 개최될 '제1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16) 관련 계획과 일정 등을 담은 로드맵을 관련 NGO를 대상으로 발표함. 동 로드맵은 프랑스 정부 차원에서 제안하는 로드맵으로, 아프리카 및 4대 삼림지역 국가들과의 외교적 관계 강화에 초점을 맞춤.
- 1월 말 파리에서 4대 삼림지역(아마존, 콩고, 인도네시아, 시베리아) 국가대표들과 회담을 개최하고, 이후 상기국가 정상들과의 컨퍼런스를 개최할 것을 제안함. 또한 '10년 1.31~2.1 개최될 아프리카 연합(AU) 정상회의에서 기후변화를 최고 의제로 상정하고, 차기 AU 정상회의를 5월 파리에서 개최할 것을 제안함.
- 사르코지 대통령은 이어서 3~4월 사이에 당초 미국이 중재한 코펜하겐



합의를 지지한 28개국 정상들로 이루어진 코펜하겐+ 그룹을 파리에 소집할 것을 제안함.

- 동 로드맵 발표에 참석한 NGO인 France Nature Environnement는 동 회의의 목표가 '50년간 이산화탄소 배출량 50% 감축에 합의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함.

(Point Carbon, 2009.12.22)

□ 프랑스, '10년 1월 1일 발효예정 탄소세 위헌 판결

-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10년 1월 1일 발효예정이었던 탄소세에 대하여 대규모 오염배출원에 대한 수많은 예외 조항과 소비자에 대한 부당한 에너지절약 부담 전가를 이유로 12월 29일 위헌 결정을 내림.
 - 동 재판소는 정부가 현재 EU의 탄소총량제한 및 배출거래제도(ETS) 하에서 무상 수당을 받는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원(시멘트, 유리 제조사, 화학기업 등) 중 93%를 탄소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위헌이라고 판시함.
 - 또한 기존 탄소세 법안은 1,000개 이상의 대형 오염 배출원에게 조세회피가능성을 제공하며, 교통 및 수산업과 같은 비 ETS 부문에 보조금 또는 세금 환급 등의 특혜를 제공함을 지적함.
- 프랑스 정부는 위헌 판정에 따라서 탄소세 수정 법안을 1월 말 발표하고, 7월부터 시행할 예정임.
 - 기존 탄소세 법안에서 특혜를 입은 기업들은 정부가 법안을 수정할 경우 기업의 경쟁력 약화와 대규모 실직 사태가 초래될 것이라며 주장함.

(Point Carbon, 2009.12.30), (AFP, 2009.1.5)

□ 스페인, 풍력발전 보완 위해 가스복합화력발전소 설비용량 증대

- 스페인은 '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비중을 20%로 확대하기 위해 풍력발전단지 설비용량을 '09년 1.7만MW에서 '16년 2.9만MW로 증가시킬 계획임. 그러나 풍력발전량의 간헐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가스복합화력발전소의 전력공급을 증대할 계획임.



- 스페인 정부는 12시간 동안 발생하는 200MW~1.1만MW 규모의 풍력발전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가스화력발전소 설비용량을 '09년 2.2만MW에서 '16년까지 3.3만MW로 증가시킬 예정임.

(EurActiv, 2009.12.29)

□ ABI Research, CCS 상용화를 위해 톤당 탄소가격 \$40로 인상 주장

- 연구조사기관 ABI Research는 CCS 상용화를 위해서 탄소가격이 최소 톤당 \$40에서 거래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제 15차 기후변화 당사국총회의 구속력 있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실패로 최근 탄소가격은 크게 하락하여 1월 4일 오전 현재 탄소선물가격이 13유로(\$18.75)에서 거래되었는데, 이는 ABI Research가 주장한 탄소거래가격의 50%를 크게 밑도는 수치로 탄소시장이 동 가격대를 유지한다면 CCS 상용화는 지연될 것으로 전망됨.
 - 청정기술산업 분석기관인 Pike Research도 탄소가격이 인상되지 않으면 CCS는 발전기업에 비경제적이라고 주장함. 동사는 CCS 적용으로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비용이 50~70%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각국 정부는 경기부양책을 통해 대규모의 기술개발 투자를 꾸준히 하고 있어 향후 CCS 관련 기술이 보다 발전할 것으로 예상됨.
 - 미국은 경기부양자금 중 \$34억 규모의 자금을 CCS 관련 사업에 책정하였고, EU는 '13년까지 \$5.35억의 자금을 CCS 및 청정석탄기술 개발에 투자할 계획이며, 호주와 캐나다, 노르웨이도 조만간 수억 달러의 자금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함.
 - ABI 보고서는 '09~'14년간 1.46억 톤의 CO₂ 포집을 위해 73개의 신규 CCS 사업에 \$146억이 투자될 것으로 예상함.
- 동 보고서는 '14년 세계 탄소배출권거래시장에서 거래되는 탄소크레딧 규모가 \$3,950억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였는데 이는 '08년 \$1,180억의 3배 이상 큰 규모임.

(earth2tech.com, 2010.1.5), (Sustainable Business, 2010.1.6)



1. '10년 세계 천연가스 수요·공급 전망

□ 개요

-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의 전망에 따르면, '10년 이후 중국이 LNG 최대 수입국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며, 라틴아메리카는 새로운 LNG 수요중심지로 부상할 것임.
- '10년 세계 천연가스 총생산량은 '09년보다 1% 증가할 전망이다. 미국은 생산량 증가율이 둔화되겠지만 동남아시아와 중동지역은 강한 생산량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 세부 내용

- '09년 낮은 가스가격으로 발전부문에 석탄보다 가스의 수요경쟁력이 우월하였으며 '10년 이후에도 낮은 수준의 가스가격이 유지된다면 가스 수요는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미국 Henry Hub 기준으로 '09년 9월 가스가격은 '08년 2/4분기 평균가격인 \$13/MMBTU에서 \$3/MMBTU 이하로 급격히 떨어졌는데 이는 7년 만에 최저치에 해당됨. 뉴욕상업거래소(NYMEX) 기준으로 '09년 10월 가스가격은 \$5/MMBTU 수준을 기록함.
 - 향후 2년간('10~'11년) 가스수요 증가율은 연평균 2.8%로 '05~'07년 3.3%보다는 다소 감소될 전망이다.
- '10년 이후 중국이 LNG 최대 수입국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며, 라틴아메리카가 새로운 LNG 수요중심지로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이 LNG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최대 LNG 수출국인 카타르로부터 연간 500만 톤을 공급받고 있음.
 - '09년 10월에 중국 해양석유총공사 CNOOC는 카타르 액화천연가스기업 Qatargas와 25년간의 LNG 공급 계약을 통해 첫 카고물량을 공급받았음.



- 중국은 '09년 9월, 전년 동월대비 144% 증가한 78.9만 톤의 LNG를 수입하였는데, 이는 중국 역사상 최고 수준임.
- 중국은 3/4분기에 남동부 푸젠성(Fujian)에서 두 번째 수입터미널을 가동하였고, 상하이(Shanghai)에서 세 번째 터미널을 가동하였음. 또한 '09년에 호주, 파푸아 뉴기니아와 연간 760만 톤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음.
-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및 우루과이는 총 21억ft³/d 용량의 6개 LNG 터미널을 구축하고 있음. 멕시코 역시 새로운 LNG 터미널로 인해 자국의 LNG 수요를 안정시킬 것으로 예상됨.
- '10년 세계 천연가스 총생산량은 '09년보다 1% 증가할 전망이다. 미국은 생산량 증가율이 둔화되겠지만 동남아시아와 중동지역은 강한 생산량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 미국에서 가스가격의 하락으로 대표적인 석유·가스생산업체인 베이커 휴즈(Baker Hughes)는 탐사활동을 줄이고 있음.
 - 호주와 인도는 신규 프로젝트의 가동으로 생산이 증대될 전망이며, 인도네시아는 탕구(Tangguh), 파푸아(Papua)에서 신규 LNG 시설로 LNG 공급을 증가시킬 전망이다.
 - 중동에서는 LNG 최대생산국인 카타르가 '09년 9월 Qatargas II의 두 번째 트레인을 가동했으며, 10월 RasGas III의 첫 번째 트레인을 가동하기 시작하였음.
 - Rasgas III의 두 번째 트레인은 '09년 12월 말에 가동예정임. Qatargas III, IV의 마지막 두 개의 대규모 트레인은 예정대로 '10년에 가동 예정임.
 - '09년 초에 카타르의 LNG 생산은 연간 3,170만 수준에 이르렀지만 '10년 말에는 연간 7,700만 톤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09.12.4)



2. LNG시장, '09년 회고와 '10년 전망

□ 개요

- '09년 경제침체의 여파로 LNG 가격과 수요가 약화된 가운데, LNG 공급 부문 역시 기술상의 문제로 예상보다 부진하였음. 그러나 '10년 LNG 공급은 '09년 신규 액화설비가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하며 연간 2.27억만톤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이는 '09년 대비 연간 4,400만톤 가량 증가한 수치로, 45년 만의 최대 규모임.
- '09년 신규 수입터미널의 총 처리능력이 신규 LNG 생산능력을 초과하였으며, '10년에도 동 추세가 지속되어 수입터미널의 가동률은 더욱 감소할 전망이다.
- '09년 유가하락의 영향으로 PNG 및 LNG 가격이 세계 주요시장에서 일제히 하락하였음. '10년 LNG 공급증가는 세계 모든 주요시장의 PNG 및 LNG 가격하락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신규 LNG 생산능력

- '10년 신규 LNG 생산능력이 연간 약 2,455만톤 증가하여 '10년 말 연간 2.8억톤에 이를 전망이다. 그러나 '06~'08년 단 5건의 최종투자결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11년 이후 신규 LNG 생산능력 증가세는 둔화될 전망이다.

'10년 신규 LNG 생산능력(백만톤/연)

국가	시설	생산능력	가동시기
예멘	Yemen LNG Train 2	3.35	'10년 2분기
말레이시아	Dua debottleneck	1.2	'10년 1분기
카타르	Qatargas III	7.8	'10년 2분기
페루	Peru LNG	4.4	'10년 2분기
카타르	Qatargas IV	7.8	'10년 4분기
합계		24.55	

출처: A. Flower Associations

- '09년 건설이 시작된 호주 Gorgon 프로젝트(연간 1500만톤)와 최종 투자가 결정된 파푸아뉴기니 PNG LNG 프로젝트(연간 660만톤)는 '14년



이후에야 생산을 개시할 것으로 예상됨.

- '09년 말 세계 LNG 생산능력은 연간 2.56억톤으로 예상되며, 평균 LNG 생산능력은 연간 2.25억톤으로 액화설비의 평균 가동률은 80% 수준임.
- '09년 LNG 생산능력은 연간 5,175만톤 증가하였으며, '10년 LNG 공급 증가에 주요한 역할을 할 것임.

□ 신규 재기화능력

- '09년에는 신규 수입터미널 처리능력이 신규 LNG 생산능력을 초과하였음. '09년 말 현재 신규 수입터미널의 연간 처리능력은 총 7,360만톤이며, 그 중 60%는 영국과 미국 시장에 위치하고 있음. 동 수입터미널들은 '10년 LNG 생산 증가를 흡수할 것으로 예상됨.
- '10년 신규 수입터미널 건설은 연간 3,360만톤으로 전년보다 느슨해질 것으로 예상됨. '08년 LNG 수입터미널의 평균가동률은 50%였으며, '09~'10년 신규 수입터미널의 처리능력 증대가 LNG 생산능력보다 높기 때문에 향후 수입터미널의 가동률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LNG 가격

- '09년 유가하락의 여파로 PNG 및 LNG 가격이 세계 주요 시장에서 일제히 하락함.
 - 유가하락은 즉각적으로 미국 Henry Hub 기준 PNG 가격 하락을 초래하여 '09년 3월 거래가는 \$4/MMBtu를 기록함. 영국 National Balancing Point(NBP) 또한 유가하락 이후 점차 떨어져 '09년 중반 Henry Hub PNG 가격을 소폭 상회하는 수준임.
- '09년 유가급락으로 인해 유가연동가스가격과 실제 생산지가스가격(Hub price)간의 격차가 심화되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미국보다 유럽지역이 더욱 두드러졌음. '10년 LNG 공급 증가는 세계 모든 주요 시장에서의 PNG와 LNG 가격의 하락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LNG Business Review, 2009.12~2010.1)



세계 석유재고량, 흑한기 난방유 소비 증가에도 높은 수준 유지

□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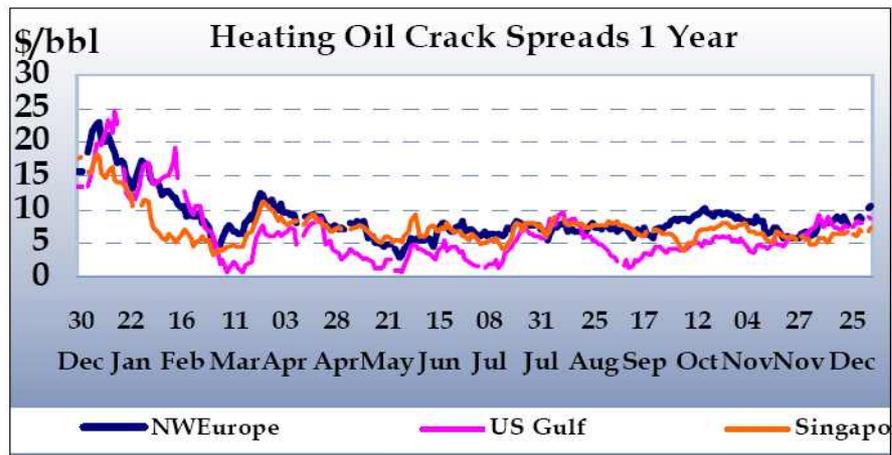
- 최근 북반구 지역의 흑한에 따라 난방유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유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함.
 - 난방유 수요 증가에 힘입어 '10년 첫째 주 유가는 \$80/bbl을 돌파하였으며, 이러한 난방유수요증가세가 그간 축적된 재고 감소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 하지만 최근 흑한기 난방유 수요 증가가 최근 5년내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석유재고량을 크게 감소시킬 수는 없을 것임.
 - 최근 몇 주간의 난방유 소비 증가로 인한 중간유분 재고 감소는 전체 재고량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며, 휘발유 재고와 원유재고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중간유분 재고 감소효과는 크지 않음.
 - 중국 정유공장의 높은 가동률로 인한 석유제품 공급 증대는 아시아 시장의 석유제품 재고 수준을 더욱 높이고 있는 상황이며, 싱가포르의 중간유분 재고는 최근 6주간 최저치를 기록하긴 했으나 이는 일시적인 인도네시아의 수입증대에 따른 현상으로 분석됨.

□ 세부 내용

- 미국 및 북아시아지역의 한파로 인해 최근 난방유 수요가 크게 늘고 있으며, 이로 인해 '10년 첫째 주 국제유가는 \$80/bbl를 돌파함.
 - 그간 국제 원유가격은 펀더멘탈 측면 보다는 달러환율 및 자금 유동성 등의 금융요인에 의해 크게 영향 받아왔으나, 최근 흑한에 따른 석유제품 수요증가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 '09년 말부터 시작된 흑한의 영향과 더불어 세계 주요국의 경기지표 호전은 '10년 낙관적 경기전망에 힘을 실으며, 석유화학 등 경기선행 산업 분야의 석유제품 소비증가 기대를 확산시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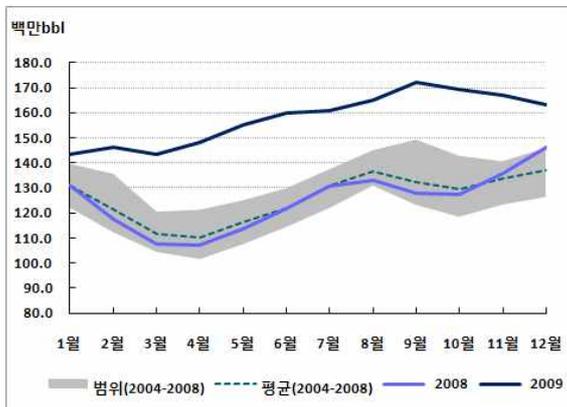
- 일반적으로 동절기 도래에 따라 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하는 제품은 난방유 및 경유를 포함한 중간유분으로 최근 등유 가격은 난방수요 증가와 블랜딩 수요로 인해 급격히 상승함.
- 아시아 및 미국의 제트유 소비 증가세와 북유럽의 타이트한 중간유분 수급 상황은 중간유분 가격 상승폭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 영국 및 미국 북동부 지역의 한파로 인한 난방유수요도 크게 증가하고 있어 해당지역의 난방유 가격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추세임.



주: Crack spread는 원유가격과 석유제품 가격 간 차이를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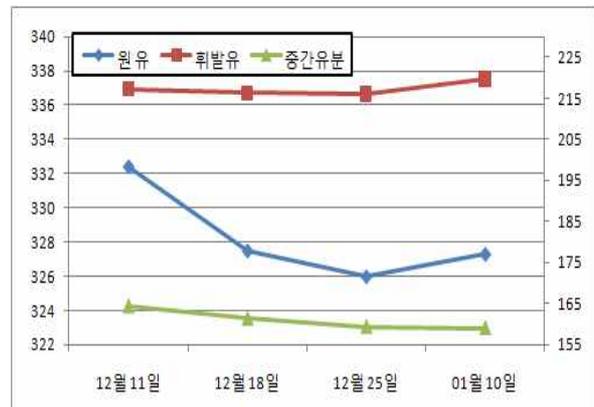
- 그러나 추운 날씨로 인한 난방유 수요의 증가가 그간 축적된 높은 재고 수준을 떨어뜨리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분석됨.
- 휘발유는 크리스마스 시즌으로 인한 소비 증대로 재고 감소를 보였으나 신년 이후 소비는 다시 감소하여 재고는 반등함.

<최근 5년간 미 중간유분 재고 변동>



자료: 미 에너지정보청(EIA)

<미 석유 제품별 재고변동>



자료: 미 에너지정보청(EIA)



- 미 민간기상예보업체인 Weather Derivatives에 따르면 이번 미 북동부 한파로 인해 향후 1주간 난방유 소비가 예년에 비해 11% 증가할 것이라 전망한 바 있으나 현재 재고 수준을 감소시키기엔 역부족인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동절기 한파로 인한 북반구 지역의 난방유 소비 증가 상황은 단기유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뿐, 장기적으로 재고감소를 유발하여 석유 수급 상황에 영향을 주기는 힘들 것으로 예측됨.

(KBC Energy Economics, Weekly Market Report, 2010.1)